

목 록

20231010082358.....	1
20231010082415.....	3

그냥 아니라고 해?

쪽

이형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영이 떠오르기도 하지?

정말 그렇게 수영을 기른 할아버지 한분이 기억가고 있었단다. 그때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아이는 할아버지의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수영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주무실때나 그 수영을 이불안에 넣나요, 아니면 꺼내 놓나요?" 할아버지는 "여기!"

이 비릿없는 놈." 하고 수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 궁금해졌단다. 왜냐하면 수영을 기른채 몇십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번도 그런공중을 지녀 본적이 없거든.

허허 그러고 보니 내가 수영을 꺼내 놓고 잤나, 넣고 잤나?

아무 생각해보도 마냥상당송 하기만 했지. 7월국 할아버지는 낯치한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마냥할수 밖에 없었

단다. "글쎄다. 히, 참. 이녀석 별별 다 묻는구나 정

궁궁하다면 말야, 오늘 밤에 한번자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 주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이불자리플 펴고 누웠지. 우선 이불 속에

수영을 넣고 말아야. 그런데 너무 갑갑하고 거북해서

하루래도 수영을 밖에 내놓고 자야 할 것 같았어.

'응지! 수영을 밖으로 꺼내 놓고 장게 붙명해!'

할아버지는 어린 수영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눈을 가아 보았어. 그런데 붙명하건 마창기
였어. 이불밖으로 내놓은 수영 때문에 한지
러진하고 서늘정함. 기분이 좋어서 마음이 편
지 않았잖아. 아무리 자려해도 잠을
이루수가 없었지. 수영을 이불로 덮어 갑갑하고,
이불밖에 꺼내놓으면 러진하고 - - -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영을 넣었다 꺼냈다
하노라고 한숨도 잤수없었잖아, 물론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가르쳐 주실 노라고 했던
아이와 약속도 지켜지 못했지. 이상한일
아니니? 붙명 그건 할아버지 자신의 수영이고,
할아버지는 몇십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잠을
자는데 막이야. 그런데도 아기가 묻기 전까지
그 수영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 기억을 할수없잖아
그렇다고 다른사람에게 물어볼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물어봐라고 한들 누가 가르쳐 줄수도 없는 문제
잖아 정말 갑갑하고 기막힌 일이었지
그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영때문에 편히
자수가 없었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웃어넘길일이 아냐.

마한히 생각해서 부정,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염이
 있는지 말야. 아이들한테 무슨 수염이 있냐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 누가 질문할 때 가끔 '그냥'
 이라고 대답한 적 있잖아. 바로 그 '그냥' 이라는 말이
 너의 수염이란다. 아직도 잘 모르겠냐고?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지내노라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노는 많은 말야. 어떤 때는
 뽕이 와서 꽃이 피어도,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
 이 떠오르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흘깃 보고 재쳐
 버리기도 하지. 새록이 어떻게 자라는 지에 얽매
 가고, 구름이 어떻게 뽕이냐를 물어보는 지 몇 번
 이나 눈여겨 보았나? 자신에게 도는 남들에게
 궁금한 일을 몇 번이나 질문해 보았나? 남들이 흉내
 그냥 따라하고 이론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던 일은
 없나? 자기양에 몰입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지 못하는
 사람은 건전지를 넣고 단락을 누르면 그냥 복을 채우는
 공인형과 별로 다르게 없어. 아무 생각없이 모든
 순간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랑은 이야기속
 살아버리고 있어. 자기것이지만 자기것이 아닌
 수염을 갖고 있잖아 말야.

(그냥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누가 '왜' '어떻게' 하고 무언을 애먹래랴 하리 못하).

아무리 자기가 할 일을 뒤돌아 보고 생각해 내려고 애써도 지나온 날들은 이미 멀리 사라져 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이즈날엔가 너한테도 누군가가 물어뜯지 몰라. 기대를 위해서라도 '그냥'이라는 대답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해야겠지?